

예비교사와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통한 교육대학 입학과 사교육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ssion to University of Education and Private Education through Perceptions of Pre-service Teachers and High School Teachers

이종학*, 김유영**, 윤마병**

대구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전주대학교 과학교육과**

Jong-Hak Lee(mathro@dnue.ac.kr)*, Yoo-Young Kim(yooykim4@naver.com)**,
Ma-Byong Yoon(mabyong@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교육대학의 입시 제도가 사교육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대구·경북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과 교육대학 입시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D 교육대학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대학 입학 전형 요소와 사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교육대학 입시에서 내신 강화가 공교육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지만, 내신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오히려 사교육을 강화하는 역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농촌 지역인 경상북도와 대도시인 대구 지역의 전형 요소별 인식 차이가 커서 지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전형과 각 교육대학이 위치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입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시 전형의 요소별 점수 반영 비율에 대해서 3학년 담임교사들은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면접 반영 비율의 상향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교육 감소를 위한 교육대학 입시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서류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요구되며, 면접의 강화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사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면접의 방향 및 문항에 대한 공개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 **중심어** : | 교육대학 | 대학입시제도 | 사교육 | 예비초등교사 | 입학전형요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how university's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s related to private education, and to explore how to improve the university of education entrance system in order to reduce private education costs. For these purposes, 116 teachers of senior students in high school in Daegu and Gyeongbuk and 107 pre-service teachers who had experienced the entrance of the university were surveyed in order to find out the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ssions elements and private education.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concentrate more on school education by strengthening high school grades in the entrance examination. However, there was other opinion that the strengthening high school grades in the university entrance could lead to the further increase in the cost of private education. As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he screening factors between rural areas (Gyeongsangbuk-do) and large cities (Daegu),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hird-year teachers in high schools argued that university admissions should reduce the rate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and increase the rate of interview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improvement of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to reduce the cost of private tutoring requires securing fairness of document evaluation, strengthening interviews, and opening interview questions.

■ **keyword** : | University of Education | University Entrance System | Private Education |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 | University Admission Factors |

I. 서론

최근 들어 사교육의 팽창으로 지출되는 가정의 경제적 비용 증가 및 사회적 손실과 함께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교육 현안은 대한민국 사회와 교육계의 가장 큰 해결 과제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1]. 사교육의 확장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로 교육부(2018)가 실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7년에 70.5%로 전년인 2016년의 67.8%에 대비해서 2.7% 상승했으며,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1시간으로 전년(6.0시간) 대비 0.1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공식적으로 공교육 보조재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허용된 사교육이 공교육과 점차 대등한 지위로 팽창하는 것은 다른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함께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대학이 자녀가 가질 미래의 직업과 연계되어 앞으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이면서 공교육 체제의 결과물인 학벌주의, 대학 간 공고하게 획일화된 서열, 학력 간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이 대학 입학과 관련된 사교육이 성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3].

이와 같은 사회적 현실에서 교육대학에 입학하는 대다수의 초등 예비교사들은 1980년대 허용된 사교육 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하는 시기에 태어나서 공교육과 사교육을 일상으로 경험하는 학령기를 거쳤다. 따라서 초등 예비교사들에게 '학교'와 '학원'은 상호 공존하는 교육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간주되며, 이들은 공교육과 사교육 공간을 넘나들며 '학교'와 '학원'의 교육 경험을 일상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성장하였고, 이 과정은 이들이 예비교사로서의 교직관을 갖추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공교육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함께 비판적 생각을 드러내면서 교직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고, 공교육과 비교하여 사교육 경험의 긍정적 효과를 기술하면서 공교육 교사를 지망하는 자신을 아이러니와 모순으로 표현하기도 한다[4]. 나아가 최윤진과 전하람(2017)에 따르면 사교육은 예비교사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을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낳고 있는 혼돈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했다[5]. 교사는 급변하

는 입시 경쟁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교육 강사들보다 뒤쳐져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수업에서 입시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면 교과서를 보지 않는 것은 문제시 되지 않을 만큼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이종재와 이희숙(2008)은 사교육이 활성화된 한국 교육의 독특한 사회적 환경이 예비교사들의 교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미 사교육은 몇몇 학습자들이 학업수준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사적 교육 투자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넘어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하도록 강요되는 보편적인 교육 활동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한다[6].

우수한 초등교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특수목적대학으로서 교육대학은 초등 예비교사들에게 교사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밑바탕으로 전문적인 교육실천 능력을 갖춘 교사로서의 교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무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선행 연구[3][6][7]와 같이 교육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사양성과정이 사교육의 증감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사교육이 유발하는 우리 사회의 교육·사회·경제적 문제에 일조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대학에서 계획된 교사양성과정에 따라 '좋은 교사'로 전문성을 갖추더라도 이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단계인 임용고사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다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일례로 교원양성대학의 4학년을 대상으로 양성과정의 실패를 조사한 김갑성 등(2009)은 설문 참여자 중 86.8%의 학생들이 임용시험 관련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할 만큼 사교육이 교사양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7]. 그런데 강문숙과 유재봉(2018)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체로 사교육 관련 연구는 유아·초·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수요 조사연구,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교사나 교수 방법 등에 대한 비교연구와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4], 초등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사교육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대학의 입학전형 요소 및 방법의 변화가 사교육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육대학의 입시와 사교육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8].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대

학의 입시 제도에서 사교육의 감소를 통한 교원양성과정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 공교육인 초등학교 현장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대학의 입학 전형과 사교육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려 한다. 연구 대상인 고등학교에서 입학을 담당하는 3학년 담임 교사들과 교육대학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교육 관련 인식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예비 교사 및 현장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 이념에 적합한 교육대학 입학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D교육대학 2019학년도 학생부 및 정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150명과, 입학전형에 지원자가 많았던 대구·경북 지역 고등학교의 3학년 담임교사들로 총 271명을 연구 대상으로 D교육대학 입학 전형과 사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교육대학에서 시행하는 입학전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입시를 담당하는 3학년 담임교사들과 교육대학 입시를 경험한 D교육대학 1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먼저 이들이 대학 입시의 최전선에 있는 교사들로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학생부 기록을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이 대부분 수행하고, 일반적으로 수시와 정시 입시 상담도 3학년 담임교사들이 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이 대학 입시 제도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교사들이자, 대학 입시를 위한 학생들의 준비 과정을 가장 정확히 아는 교사들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맥락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본 연구의 직접적인 대상 중의 하나인 현장 교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선 조사 대상학교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 중 2018년도 입시에서 D교육대학에 지원자가 많은 순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1~10위의 학교를 선정하고, 이들 학교의 입시담당 교사(3학

년 담임교사) 121명을 표집하였다. 연구 대상 학교들에서 D교육대학 입시에서의 전형 지원자 수 및 학교가 위치한 지역, 입시 담당 교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교사의 소속 학교 및 인원수

순	고교명	지역	D교육대학 지원자수	연구대상 교사(명)
1	00여자고등학교	대구	32	14
2	00여자고등학교	대구	22	14
3	00여자고등학교	대구	22	13
4	00고등학교	대구	13	13
5	00고등학교	대구	11	10
6	00고등학교	경북	11	10
7	00고등학교	대구	10	12
8	00여자고등학교	대구	10	10
9	00여자고등학교	경북	10	10
10	00여자고등학교	대구	9	15
합계			150	121

연구 대상 교사들에 대해서 설문지를 우편과 인편으로 배포하고, 총 116부를 회수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총 116명인 연구 대상 교사들의 교직 경력과 진학지도 경력을 조사하였다[표 2].

표 2. 연구 대상 교사들의 교직 및 진학 지도 경력

교직 경력	교사 수(명)	비율 (%)	진학 지도 경력	교사 수(명)	비율 (%)
20년 이상	33	28.4	10년 이상	32	27.6
10년 이상 ~ 20년 미만	52	44.8	5년 이상 ~ 10년 미만	28	24.2
5년 이상 ~ 10년 미만	20	17.2	3년 이상 ~ 5년 미만	19	16.3
5년 미만	11	9.6	3년 미만	37	31.9
합계	116	100		116	100

연구 대상 교사들의 교직 경력은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박찬주와 심춘자(2002)가 분류한 교사의 발달 단계를 기반으로 하여 대체로 교사의 발달 주기에서 5년 미만은 교직 입문의 초임교사 시기로, 5년 이상~10년 미만은 교사로서의 능력을 구축하고 성장하는 저경력 교사의 시기로, 10년 이상~20년 미만은 교사로서 도약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중경력 교사의 시기로, 20년 이상은 교사로서 안정기인 고경력 교사의 시기로 하였기 때문이었다[9]. 연구 대상 교사들의 3학

년 교과 또는 진학 지도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는 전체 교사의 27.6%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보완된 입시에 대해서 10년 이상의 경력이라면 2~3번 정도의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진학 지도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조사 대상 교사 중 27.6% 정도는 교육대학의 입시 제도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그에 따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교사라고 볼 수 있다. 전체 조사 대상 교사의 24.1%에 해당되는 진학 지도 경험 5~10년 사이의 교사들 역시 10년 이상의 교사만큼 아니지만, 그들 나름의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이는 최소 5년이면 대학 입시를 어느 정도는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3학년 담임교사이면서 진학 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사가 전체 조사자의 51.8%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본 설문지의 응답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3학년 담임교사이지만 진학 지도 경력이 5년 미만의 교사들은 그들이 5년 이상의 다른 교사들만큼 노련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는 현실적 타당성과 더불어 보다 참신한 방향으로의 개선 방향도 찾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2019학년도 D교육대학 입시전형에 합격한 1학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정한 4개 심화 전공의 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들은 가장 최근에 교육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로 사교육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던 사교육 내용과 교육대학교 입시정책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교육대학에 입학할 때 사교육에서 준비했던 것들이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문문이 가능할 것으로 여겼다. 다시 말해 D교육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면접 등 사교육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설문 내용을 분석하여 입학과 사교육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남학생 38명, 여학생 69명으로 여학생 참여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대체로 교육대학이 지닌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연구 대상 학생들의 고등학교 계열별 분류는 일반고가 9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 공립고 4.8%, 자율형 사

립고 2.9%, 특수목적고 1.0% 순이었고, 특성화고와 종합고는 한 명도 없었으며, 무응답한 학생은 3명이었다. 대체로 교육대학 신입생은 일반고 출신이 많았고, 이는 고등학교 내신을 중시하는 입학 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특성화나 특수목적고의 우수한 인재를 고르게 뽑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2018년 D교육대학 입학생의 출신 지역은 대구가 28%, 경북은 26.1%로, 대구·경북지역 학생은 전체 54.1%를 차지하였다[표 3]. 그 외에 경기 11.2%, 경남 9.3%, 서울 5.7% 순이었는데, 충남, 전북, 제주, 세종시는 합격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D 교육대학 입학자의 출신 고등학교 지역

출신 고교 지역	빈도(명)	퍼센트(%)
경상북도	28	26.1
대구	30	28.0
경상남도	10	9.3
경기도	12	11.2
서울	6	5.7
전라남도	5	4.8
울산	2	1.9
부산	2	1.9
강원도	1	0.9
광주	1	0.9
인천	4	3.7
충청북도	3	2.8
대전	3	2.8
기타(충남,전북,제주,세종)	0	0.0
총계	107	100.0

2. 연구 방법

국립·공립·사립의 학교 교육을 포함한 제도권 교육으로 공교육을 이해할 때, 대체로 사교육은 제도권 교육 밖의 교육으로서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과외 수업과 학원 교육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이다[10]. 사교육을 위해서 요구되는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과 같은 사교육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하는데 비해서[10][11],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를 조사함에 있어 사교육업체에 지불한 직접 비용(강의비와 교재비)으로 제한하였다.

사교육비와 관련된 설문지 제작과 전문가 검토 단계에서는 고등학교 현장 교육 전문가 1인과 입학사정관 1인, 교과교육전문가 2인이 참여하였다. 이에 따른 교사 설문지의 문항 구성과 관련하여, 설문지 문항을 가

능하면 교육대학 입시제도 및 사교육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각 문항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교육대학 수시 및 정시 입시 제도가 사교육 경감에 갖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어떤 것인지를 입시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맥락과 그들이 지도하면서 알게 된 학생들의 심리적 측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여 구성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교육대학을 지원할 때 가장 걱정하는 입시 제도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교사가 입시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학생들의 고민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시와 정시 제도의 구성 요소 중 각각의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교육 경감에 보다 좋은지를 질문함으로써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교육대학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뽑는 것이 우수한 학생,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을 선발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인데' 라고 생각하였던 3학년 담임교사들의 생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 교사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맥락을 파악하고, 입시 제도와 관련된 교사 인식의 맥락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선다형과 서술형 문항을 짝을 이루어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특히 모집 비율을 높여지고 있는 수시와 관련된 문항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제시한 바와 같이 이는 사교육 경감과 교육대학 입시 제도의 관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깊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교육대학의 수시와 정시 제도와 관련된 구성 요소는 되도록 모두 다루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입시 제도의 구성 요소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대학 수시 및 정시 입시 제도가 갖는 구성 요소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 교사들이 가지는 사교육 경감과의 인식 여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넷째, 교육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된 교사들의 인식을 알기 위해서, 연구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묻는 대신에 사교육 경감을 위한 연구 대상 교사들의 아이디어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학생 설문지 문항의 구성은 현실적으로 사교육에 지출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주지 교과목과 비교과, 수시와 정시를 대비해서 지출되는 사교육과 연관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

으며, 또한 사교육에 지출되는 각 교과목의 비용과 교육대학 입시 제도와 연계하여 조사하였는데, D교육대학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설문지 문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D교육대학 수시 및 정시 입시 제도가 사교육 경감에 갖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학업 성취를 위해 받은 사교육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사교육을 받느라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학생들이 D교육대학에 입학한 후에 사교육 경감을 위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으며, 셋째, 교육대학의 수시와 정시 입시제도와 관련된 구성 요소는 되도록 모두 다루고자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사교육 참여율과 효과

설문에 참여한 2018년 D교육대학 입학생(107명) 중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105명을 분석하니 D교육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고교시절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82.9%(87명), 받지 않은 경우가 17.1%(18명) 이었다. 이는 교육부(2018)가 실시한 사교육비 조사에서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55.0%)과 비교하여 30%가 높은 수치였다[2]. 구체적으로 [표 4]와 같이 고등학교 국어 교과 관련 사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학생은 연평균 20명(19.1%) 내외로 조사되었는데, 대체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이 학생들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국어 사교육은 학원 수강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비용은 21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 온라인 강의가 평균 1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즉, 국어 사교육은 학원과 유료 온라인 강의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87명(82.9%) 중 고등학교 시절 수학 교과 관련 사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학생은 평균 55명(52.4%) 이었다. 특히 수학 사교육은 개인과외가 평균 36만원, 그룹과외가 평균 35만원, 학원 수강 평균 32만원, 유료 온라인 강의가 1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국

표 4. 고교 재학 중 사교육 빈도와 비용

분 야	수강 형태	수강시기 및 시간																	
		고1				고2				고3									
		응답 자	시간	개월	비용 (만원)	응답 자	시간	개월	비용 (만원)	응답 자	시간	개월	비용 (만원)	응답 자	시간	개월	비용 (만원)		
고교과	1) 국어 영역	① 학원 수강	12	2.5	7.7	18.2	13	2.6	11.1	22.4	13	2.3	5.8	22.3	7	2.3	4.4	22.5	
		② 개인과외					2	2	16	0	1	2	6	2					
		③ 그룹과외																	
		④ 유료 온라인강의	2	3	12	6.5	3	4.7	9.7	7.7	9	3.9	6.4	20.5	8	4.5	6.5	24	
		⑤ 기타					1	7	10	10	1	7	10	10	2	8.5	7.5	10	
		총계	14				19				24				17				
	평균		2.6	8.3	16.5		3.1	11.3	17.1		1.8	3.1	8.2		4.1	5.8	21.7		
	2) 수학 영역	① 학원 수강	43	3.6	10.3	30.5	39	3.9	10.5	32.8	33	3.8	7.3	32.6	17	3.8	5.9	34.4	
		② 개인과외	8	3.3	10	29.4	13	2.8	9.8	33.9	9	3.1	7.5	37.5	5	2	5.6	45	
		③ 그룹과외	6	4.4	8.3	30.2	4	4.8	10.5	35	5	4.8	8.3	39.6	5	5.3	8.8	34	
		④ 유료 온라인강의	4	6.3	9.8	9.3	7	6.3	13.3	9.2	13	5.4	6.5	11.4	9	5.4	7.1	12.4	
		⑤ 기타																	
		총계	61				63				60				36				
	평균		3.8	10.0	28.9		4.0	10.7	30.5		4.1	7.2	29.3		4.2	6.6	30.3		
	3) 영어 영역	① 학원 수강	33	3.6	9.4	29.5	26	3.7	9.8	29.4	24	3.6	6.6	28.4	15	3.9	4.7	33.7	
		② 개인과외	5	3.2	10	32	5	3.2	10.5	30	6	3.2	7.5	32	2	3	9	40	
		③ 그룹과외	3	4.3	8.3	30	3	4.7	6	28.3	2	4	6	41.5	1			53	
		④ 유료 온라인강의	3	5.3	12	5.3	5	5.3	12	14.4	13	4.2	7.7	17.4	10	5.3	8.3	15.8	
		⑤ 기타																	
		총계	44				39				45				28				
평균		3.7	9.6	28.2		3.9	9.9	27.5		3.7	7.0	26.3		4.2	6.1	28.4			
4) 사회 탐구 영역	① 학원 수강													1	2	3	30		
	② 개인과외													1			53		
	③ 그룹과외																		
	④ 유료 온라인강의	4	2.7	11.3	6.7	3	2	12	22.7	20	4.4	7.1	21.7	14	4	5.5	17		
	⑤ 기타	1	4			1	4			1	4								
	총계	5				4				21				16					
평균		3.0	9.0	5.4		2.5	9	17		4.4	6.8	20.7		3.6	5	20.1			
5) 과학 탐구 영역	① 학원 수강	4	3	9	33.8	3	4	12	33.3	4	4	5.8	35	2	3	6	30		
	② 개인과외	1	2	6	30	1	2	12	30	1	2	6	30						
	③ 그룹과외																		
	④ 유료 온라인강의	4	7.1	5.8	11.5	4	7	8	11.5	6	4.6	7.5	10.5	5	6.2	8.2	12.2		
	⑤ 기타																		
	총계	9				8				11				7					
평균		4.7	7.2	23.4		3.8				4.1	6.7	21.2		5.3	7.6	17.3			

어 교과와 달리 수학 교과는 개인과외와 그룹 과외에 많이 지출되었다. 또한 국어, 영어, 수학 교과외의 사교육 중에서 수학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국어, 영어보다 많았다. 영어 교과 관련 사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학생은 평균 39명(37.2%)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영어 사교육은 학원 수강이 대부분을 이루었으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룹과외, 개인 과외, 학원 수강, 유료 온라인 강의 순으로 지출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사회탐구영역 관련 사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학생은 평균 11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유료 온라인 강의에 대부분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학탐구영역 관

련 사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평균 9명(8.6%)이었으며, 대체로 학생들은 유료 온라인 강의, 학원 수강으로 과학 탐구 영역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육부(2018)가 실시한 사교육비 조사에서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로 국어(17.7%), 영어(39.1%), 수학(42.3%), 사회과학탐구영역(10.4%)과 비교하여 D 대학 입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대체로 높은 경향이었고, 특히 수학 교과(52.4%)에서 높았다. 사교육이 D교육대학 입학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설문 에 참여한 2018년 D교육대학 입학생들은 과거 사교육 이 D교육대학 입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학생이 52.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매우 도움” 36%, “도움이 안됨” 7%, “보통이다” 4.7%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학생도 한 명이 있었는데, 설문문에 참여한 약 88.3%의 학생이 사교육이 D교육대학에 입학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입시 제도와 사교육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가 사교육 경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대상인 대구와 경북 지역 3학년 입시 담당 교사들의 인식은 [그림 1]과 같다. 대구 지역 교사들의 경우에 조사 대상 교사 중에서 38%가 D교육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제도는 사교육경감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체 조사 항목 중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이었는데, 가장 부정적인 판단인 “도움이 많이 안 된다.”라는 응답에도 6% 정도의 교사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도움이 별로 안 된다.”, “도움이 많이 안 된다.”라는 부정적 의견들의 합은 44%로서, 이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대답들의 합인 25%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는 경북 지역의 3학년 담임교사들과는 다른 결과인데, 경북 지역의 경우에 긍정적인 비율이 무려 55%나 되어 대구 지역의 2배가 넘는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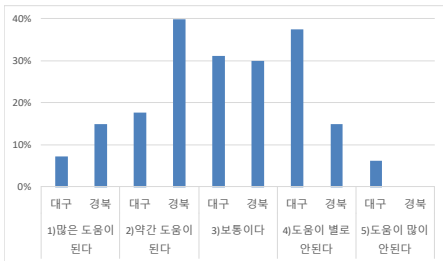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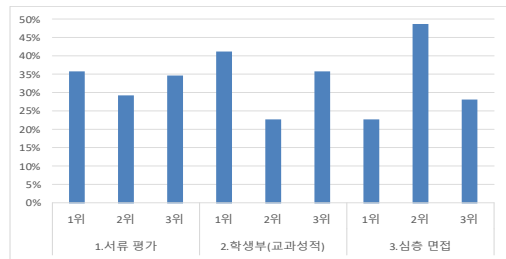


그림 1.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가 사교육 경감에 미치는 영향(대구/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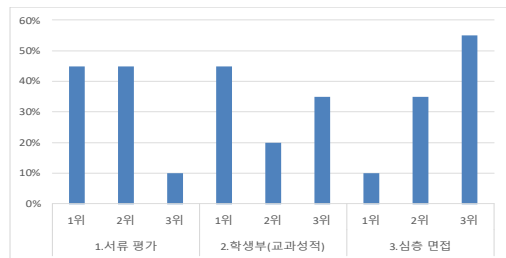
경북 지역의 조사 대상 교사 중에서 55%는 D교육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가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 내용을 대구 지역 교사들의 응답과 비교하면 그 의미는 보다 뚜렷해지는데, 대구의 경우 “약간 도움이 된다.”에 18%의 교사가 대답하였지만, 경북은 40%의 교사가 대답하여 약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많이 도움이 된다.”에도 그 차이가 2배를 넘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부정적인 대답의 비교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대구 지역 교사의 경우 부정적 의견이 44%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경북 지역은 15%에 불과하였다. 대구와 경북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대도시인 대구와 농·어촌 지역이 많은 경북이 교육 환경 등에서의 차이로 인한 교과 성적의 유·불리만으로 전체 경향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위험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시 되는 입시 제도의 요소로는 서류평가, 학생부(교과), 심층면접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에서 입학전형 요소들의 순위에 대한 문항인 “본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 중 사교육 경감에 도움을 주는 요소들의 순위를 적어주십시오.”라는 질문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사교육이 경감되려면 D교육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수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D교육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 중에서 어떤 것이 사교육 경감에 도움을 주느냐 것이다. 이 의미에서 전자는 문제점에 초점을, 후자는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 대상인 대구와 경북 지역의 3학년 담임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대구 지역)



(경북 지역)

그림 2. 학생부 종합전형 요소에서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되는 인식 순위(대구/경북)

교육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요소 중에서 대구 지역 교사들이 생각하는 사교육 경감에 도움을 주는 요소들의 순위는 학생부(교과 성적), 서류평가, 심층면접 순이다. 따라서, 대구 지역 교사들이 생각하는 D교육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 요소 중에서 사교육 경감에 도움을 주는 것은 학생부 즉, 교과 성적이다. 다음은 서류 평가인데, 학생의 교내·외의 활동을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계획적으로 꾸준히 하였느냐를 판단하는 증거가 된다. 종합대학에서는 서류평가를 중요한 평가 근거로 삼기 때문에 자기 소개서를 외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교사들이 많이 경험한다[12]. 사교육 경감에 영향을 주는 D 교육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심층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순위는 세 번째였다. 이는 심층 면접이 학생의 잠재 역량과 소양 등에 관한 것으로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이 접근하기 어려우며, 심층면접에 대한 사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도 부족한 결과로 생각된다[13][14].

3학년 담임교사들이 생각하는 사교육 경감에 미치는 학생부 종합전형 요소들의 순위를 정리하면 1순위로 학생부(교과 성적) 43%, 그리고 서류 평가 40%, 면접 17%의 순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향 방향인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을 낮추고, 서류 평가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사교육 경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사교육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 비교과는 사교육으로 대체 불가함.
- 교과공부에 대한 부담 감소로 교과 성적을 위한 사교육은 조금 줄어들 것이라 예상.
- 성적 이외의 요소가 더 중요하며 교과 성적 부담이 크지 않으면 평소 독서, 체험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능함.
- 학교 내 활동 활성화로 학교생활에 충실히 할 수 있음.
- 정량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보다 자신의 일을 찾는 과정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들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그렇게 될 경우 학교 활동에 더욱 집중하

게 된다. 다양한 학내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부가 아닌 자아정체성, 인성 개발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국영수의 의존도가 줄어든다. 이들은 사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사교육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활동을 보다 정상화 시킨다.” 라는 것들이었다. 이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지 교과 위주의 교과 수업보다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와 교사로서 인성과 자기 정체성 개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육이 추구하고 본질과 관련된다. 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D교육대학이 추진하는 방향, 즉 서류 평가 반영 비율의 증가는 교육의 본질에 보다 충실한 방향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 자기소개서, 생기부 등에 조력자의 개입 여지가 많음.
- 우수적 활동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고 서류도 사교육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아짐.
- 자기소개서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많음.
- 서류평가와 면접에 관련된 학원 수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교육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교과 성적이 중요하므로 실제 교과 성적이 낮은 학생은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들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경쟁이 있는 한 사교육은 있고, 서류 평가 반영 비율이 높아, 그것이 당락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그것을 위한 사교육은 또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문화적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고 할 수만은 없는 이유들이다. 그러나 서류 평가는 학교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활동들의 중심이 되고, 또한 교사의 장기적 관찰과 평가가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사교육 문제는 크게 생기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을 감소하고 서류평가 반영 비율을 높여도 사교육 경감의 정도는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서류평가의 신뢰도가 낮으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

한 교과 성적은 중요한 요소로 여전히 인식되므로 내신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교육비는 들어감.

- 서류작성에 필요한 활동으로 사교육 투자 증가.
- 교과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서류평가의 준비와 완성도가 높음.
-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역시 어느 정도의 성적이 확보된 학생이 성취할 수 있음.
- 서류평가 반영비율 향상이 평가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 있지 않음.
- 공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전형만 보고 줄일 수 없으므로, 교과 성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학생 부담은 계속 될 것임.
- 학교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 사교육이 입시 환경에 맞게 발 빠르게 변화함.

교사들은 서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정성이 대학의 문제라면, 객관성은 고등학교의 문제이고, 신뢰성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따라서 대학은 서류 평가의 평가 근거와 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그 과정이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어야 한다. 고등학교는 교사 스스로 서류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사 스스로 학생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도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부를 공정하게 기술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대학, 고등학교, 사회가 합심하여 경쟁적 교육 문화를 완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고등학교 교육은 정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며, 그 첫걸음이 예비 초등교사를 위한 서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체계성의 확보일 것이다.

'2020학년도에 실시 예정인 정시 전형 제도 요소별 반영 점수 및 비율이 본 대학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의 사교육 경감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까?' 라는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긍정적인 답변은 대구의 경우 26.7%, 경북은 40% 이었다. 반면에 2020년 D 교육대학 입시 계획안은 과거의 안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대구는 35.6%, 경북은 40%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교사는 대구의 경우 38%, 경북의 경우는 20%로 나타났다. 긍정적 반응이 부정적 반응의 2배 정도여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40%에 가까웠다. 대학의 정시에서 수능, 학생부, 면접 반영 비율에 대해서 연구 대상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사

교육 경감에 도움이 되는 적정 비율은 대구 지역의 경우 "수능 점수, 학생부 점수, 면접 점수의 반영 비율을 현재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에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7%에 불과하였다. 현재보다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교사는 전체의 38%이고, 현재보다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교사는 전체의 55%이다. 이에 대해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교사는 전체의 53%이고,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교사는 전체의 40%이다. 면접 점수의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교사도 전체의 73%에 이른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대구의 고등학교 교사들의 대부분은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을 낮추고 학생부, 즉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하며, 특히 면접 점수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았다. 경북의 교사 중 "수능 점수, 학생부 점수, 면접 점수의 반영 비율을 현재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에 응답한 교사는 없었다. 수능 반영 비율이 지금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에 대담한 교사는 전체의 60%에 이른다.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53%이다. 면접 점수를 높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무려 전체의 87%에 이른다. 적어도 정시 전형에서 면접 점수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서는 대구와 경북 교사들 모두가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이 아주 강력하다고 할 수 있었다.

대구와 경북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면접 점수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80.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전체 교사의 61.3%이다.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사는 전체의 53.2%로서 다음으로 높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사는 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면접 점수 반영 비율과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이고,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수능 준비에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므로 사교육 경감을 생각하면 수능 비율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 수능 비율을 늘리면 학교 수업 안 듣고 학원에 의존하는 학생들 많음.

- 사교육 요인이 가장 큰 수능의 반영 비율의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정시모집이 반드시 수능 중심으로 가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함.
- 수능이라는 일회적 성적으로 교사의 자질을 판단 불가.
- 학생부 반영이 학교 수업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
- 아무리 정시라도 교대는 인성이 중요하므로 면접을 강화해서 교사의 자질 검증할 필요. 면접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사교육 경감을 약간이나마 기대할 수 있다고 봄.
- 골고루 대비하여 학교 생활이 건강해지도록, 교대 특성상 학생부 성적을 중요하게 봐야하기 때문에, 꾸준히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교사들 대부분은 사교육이 수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을 경감하려면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교 성적 반영 비율을 높이면 학교 수업에 집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교육은 정상화된다고 본다. 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조사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으로 교사들은 입시 전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수사에서 이미 학생부 포함이므로 정시 전형은 수능 잘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자.
- 사교육 경감에 대해 오히려 수능제도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반면에 현행을 유지할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구와 경북 교사들이 답변은 '혼란 방지. 기존 제도에 큰 무리가 없다' 라는 이유가 가장 컸는데 이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와 경북 교사들 중 현행 유지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성이었다. 즉,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들과 D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교육대학의 입시 제도가 사교육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고교 재학 중에 사교육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7명으로 82.9% 였는데, 이는 교육부(2018)가 실시한 사교육비 조사에서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55.0%)과 비교하여 30%가 높은 수치였으며[2], 대체로 이들은 수학, 영어, 국어, 탐구 교과와 순으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 중에서 내신과 사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 대상인 대구와 경북 지역 교사들의 인식은 다분히 이중적이었다. 즉, 내신 강화가 공교육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지만, 교육대학 입시 제도의 경우에 내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사교육을 강화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견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에서 각 교육대학이 위치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상황과 여건을 연계한 입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정시 요소별 점수 반영 비율에 대해서 대체로 교사들은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수능 준비에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므로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수능 비율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만약에 수능 비율을 늘린다면 학교 수업 보다 사설 학원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해서 사교육 요인이 가장 큰 수능의 반영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사교육은 수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을 경감하려면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교육대학은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의 취지와 적합하게 수능 반영 비율을 상향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교사들의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생각과 배치되는 결과이므로 정시 모집에서 수능 점수 반영 비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대구와 경북 지역 교사들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수능 반영 비율의 축소와 면접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았다.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사교육은 수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을 경감하려면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정시에서 인성과 적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입학생들의 자질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 대체로 이는 면접 점수 반영 비율의 실질적 향상과 합목적성을 높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면접 반영 비율을 높임으로서 사교육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사교육 감소를 위한 교육대학 입시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류 평가의 공정성 확보이다. 평가의 핵심은 공정성이고, 따라서 내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성적인 특성을 더 많이 보이는 서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고등학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한 교육대학에서도 서류 평가, 즉 대·내외 봉사 활동, 독서,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심층 면접의 강화와 함께 면접 방향의 공개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적성, 인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심층 면접을 통해 적·인성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예비 교사를 뽑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심층 면접의 방향이 공개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사교육 유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심층 면접 예시 문항을 공개하고, 심층 면접 준비 방법 공개, 모의 면접 강화, 합격자 수기 공개, 서류 준비에 도움을 줄 조언 등을 공개하여 누구나 동등한 기회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체로 교육대학 수시 입시제도 중에서 사교육 경감에 도움을 주는 순서는 학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내신 성적, 심층면접 순이다. 이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학생부 비교과, 자기 소개서와 같은 정성적 평가에 대한 반영률의 향상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지만, 이의 전제로 무엇보다 먼저 서류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평가 요소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 학생들은 교육대학 입시 준비에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사교육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공교육의 교사가 될 예비교사로서 사교육의 효과성을 논한다는 것에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는 교대 입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교육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인성과 적성을 고려한 좀 더 우수한 예비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연계된 입시 제도의 개선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대구와 경북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참고 문헌

-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교육 영향평가 가이드 라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 [2] 교육부,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보도 자료*, 교육부, 2018.
- [3] 최윤진, "대학생들의 입시 사교육경험 의미 분석: 사교육 주체, 동기, 관점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25권, 제4호, pp.83-124, 2015.
- [4] 강문숙, 유재봉, "예비교사의 사교육 경험에 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4권, 제6호, pp.229-249, 2018.
- [5] 최윤진, 전하람, "예비교사들의 교직 정체성 형성 과정: 공교육과 사교육 경험의 성찰과 재구성," *교육학연구*, 제55권, 제2호, pp.77-115, 2017.
- [6] 이종재, 이희숙, "사교육 현상에 대한 세계적 동향 분석-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기제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9권, 제2호, pp.203-228, 2008.
- [7] 김갑성, 김주아, 김도기, 김용, 남수경, *교원양성 교육과정 실태 분석: 경험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 RR 2009-07)*, 한국교육개발원, 2009.
- [8] 백중열, 류성림, 이종학, *사교육과 입학전형의 관계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2018.
- [9] 박찬주, 심춘자, "초·중등 교사발달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학연구*, 제40권, 제1호, pp.197-218, 2002.
- [10] 강영혜, *사교육의 실태와 대처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8.
- [11] 김양분, 양수경, *사교육비 추이와 규모 예측*, 한국교육개발원, 2011.
- [12] 이영재, 이진화, "중등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임용

시험 대비 사교육 실태 및 인식,”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제19권, 제2호, pp.207-229, 2014.

- [13] 김수경, 김호인, *대입 전형 유형의 간소화 방안 탐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 [14] 박현정, “학교교육의 질과 사교육 참여의 관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제9권, 제4호, pp.91-110, 2008.

저 자 소 개

이 중 학(Jong-Hak Lee)

정회원



- 201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수학교육과 교육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대구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수학교육, 교육학

김 유 영(Yoo-Young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화학과 이학박사
- 1993년 3월 ~ 현재 : 전주대학교 화학과, 나노신소재공학과, 과학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과학교육, 무기재료화학

윤 마 병(Ma-Byong Yoon)

정회원



- 2010년 2월 : 공주대학교대학원 지구과학교육과 과학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전주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과학교육, 교육학